

순천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총력전

기반시설·인력·재정·세제 패키지 지원 반도체 특별법 선제 대응 전력·용수·도로 등 구축계획 구체화 전·후방산업 유치 전략 정비

순천시가 지난 29일 국회에서 가결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관계 부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및 국가산단 지정,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

에타 특례, 인력·재정·세제 지원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을 패키지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천시는 이번 특별법이 향후 반도체 산업 육성의 제도적 틀과 입지 구조를 재편할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특별법에 담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우선 지정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중복 지정 가능 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향후 관계부서는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전략과 연계해 클러스터 지정 요건과 절차,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계획을 구체화하고 인재 양성, 소재·부품·장비 및 관련 산업 등 전·후방 산업에 관한 유치 전략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특별법 신설은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고, 반도체 산업의 지역 분산

과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전략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전부서 역량을 결집하고 실행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과 법·제도 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와의 네트워킹 및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법의 제도적 효과를 지역 성장 전략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김은총 기자 ejkim@kwangju.co.kr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이용객 연간 8만명

2023년 개장 이후 방문객 증가

가족친화 복지 거점 자리매김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가 연 이용객 약 8만명을 기록하며 농어촌지역 가족친화 복지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가족어울림센터를 이용한 주민은 총 8만 3254명이다. 2023년 3월 개관 첫해 6만 775명에 이어 2024년 8만 2180명 등 해마다 이용자가 늘어나 추세다. 가족어울림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237㎡ 규모 복합형 시설로, 다양한 가족 지원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층에는 공립 해남어린이집과 방과 후 초등 돌봄을 위한 다 함께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층에는 장난감은 물론 돌상, 백일상과 행사의 상 일체를 대여해주는 장난감 도서관이 운영 중이며, 동네카페, 실내놀이터가 자리 잡고 있다.

3층에는 부모·부부 역할지원, 가족상담, 다문화 가족 관계 향상 등 다양한 가족과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공동 돌봄과 함께 품앗이,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네부엌도 인기다.

가족어울림센터는 가족코칭스쿨, 동네부엌 등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코칭스쿨은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오감·신체발달 놀이 교실, 가족 문화나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지난해 총 90회기에 걸쳐 18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에서 가족 코칭 '부모와 함께 9태권도'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나만의 특별한 작은 결혼식 신혼부부 7쌍 예식비용 지원

광양시 예식비 700만원 이하

최대 300만원 지역상품권으로

광양시가 과도한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을 위해 총 예식 비용 700만원 이하의 '작은결혼식'을 치른 신혼부부 7쌍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인 이상이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경우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12일 사이 광양시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초혼 신혼부부에 한해 지원된다.

시는 이번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혼례 문화에서 벗어난 합리적이고 의미 있는 결혼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예식비 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식·웨딩·외식·사진·숙박 등 지역 내 관련 업종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예식 비용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광양시 가족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가족센터(061-797-68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건전한 결혼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영광군, 임신부 가족까지 '백일해 무료 접종'

영광군이 임신부와 신생아 보호 강화를 위해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돌봄 가족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임신부 중심의 예방접종에서 나아가 가정 내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 정책으로 신생아와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호자까지 예방접종을 완료해 더욱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접종 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임신 27~36주

임신부를 포함한 배우자와 출생아의 조부모·외조부모다. 9월부터 영광군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이 시행된다. 접종 시에는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이덕희 영광군 보건소장은 "이번 예방접종 확대는 임신부 개인이 아닌 가족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이 안심되는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지원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영광=이용삼 2yong3@

여수시, 예비 중3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

여수시가 관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오는 21일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예비 중3 맞춤형 1:1 진로·진학 컨설팅'을 운영한다.

이번 컨설팅은 개편된 교육과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인별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진학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수도권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관내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컨설팅을 예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해 고교 선택 등 진로·진학 설계를 조기에 지원한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으로 차시별 1시간씩 총 5차시 운영되며 학부모 동반 참여가 가능하다. 학생 모집인원은 차시별 각 10명씩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2월 3일부터 여수시행복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교육·입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학생들에게 맞춤형 최신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완도군-LH 광주전남본부
주민 주거복지 증진 업무협약



"집수리 걱정 마세요."

완도군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주거 급여 수급자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은 주민 주거 안정성 확보 및 주거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84가구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군은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 통보된 174가구를 대상으로 수급·거주 여부, 장애인 가구 등을 파악해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군은 사업비 부담과 주민 대상 정보 제공, LH는 사업 수행 기관으로 공사 발주·감독 등을 수행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LH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주거 복지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군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공정률 25%…8월 준공 순조

진도군이 추진하는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이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25%를 기록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간호복지 인력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인구의 관외 유출을 막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며, 장기근속을 통해 지역 의료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기술사는 6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4층, 30실 규모로 조성되며, 오는 8월 말에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복지인력 기숙사는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세대별 전용면적 32㎡ 규모의 원룸형 숙소로 조성되며,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해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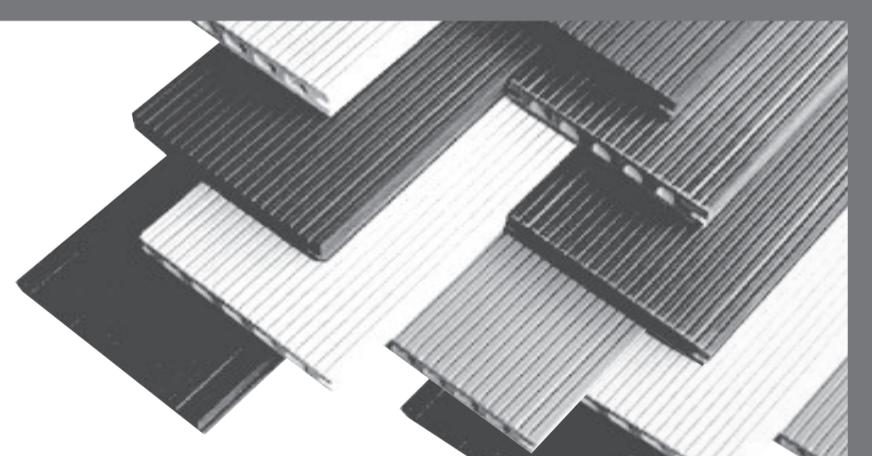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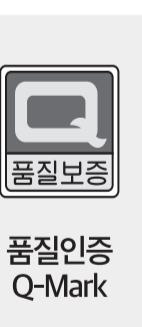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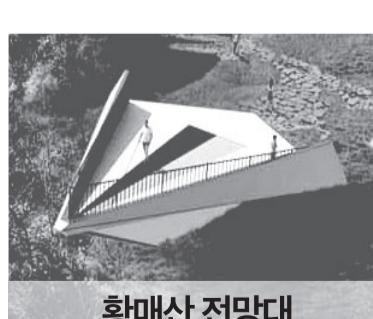
김희수 진도군수는 "농어촌 간호복지인력 기숙사 건립사업을 통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와 복지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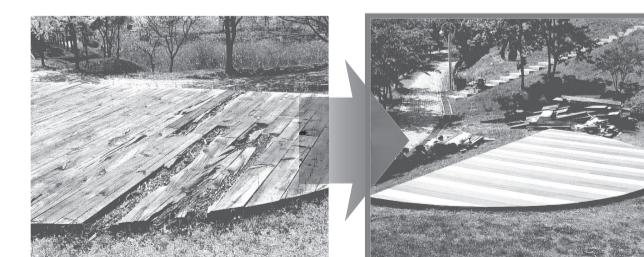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불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